“여름 축제의 새바람!” 2025, 함평 물놀이 페스타 ‘첫선’

7월 18일부터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에서… 사계절 관광 기반 완성

전남 함평군이 여름 축제인 ‘함평 물놀이 페스타’를 올해 처음 선보이며 사계절 관광을 완성했다.

함평군은 27일 “함평축제관광재단이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31일간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과 연계해 ‘2025 함평 물놀이 페스타’를 올해 첫 개최한다”고 밝혔다.

‘함평 물놀이 페스타’는 군이 사계절 축제를 완성하기 위해 봄(나비대축제), 가을(국향대전), 겨울(함평 겨울빛축제)에 이어 기획한 최초의 여름 축제다.

축제는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체험 프로그램은 주말(토·일)과 광복절 등 휴일 11일 ▲공연 프로그램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성수기와 공휴일을 포함해 총 15일간 펼쳐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서바이벌 물총대전 ▲볼풀대전 ▲징검다리 챌린지 등 이색적인 물놀이 체험 콘텐츠와 ▲EDM 버블파티 ▲K-POP 댄스파티 등 공연 콘텐츠로 구성됐다.

또한,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에는 파도풀, 슬라이드풀, 어린이풀, 워터버킷, 유아풀 등이 물놀이 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편의점과 푸드트럭 등 편의시설도 운영돼 방문객에게 한층 더 즐겁고 쾌적한 축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축제가 여름철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축제와 엑스포공원을 적극 연계해 사계절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엑스포공원 식물전시관에서는 어린왕자 의상 체험, 바나나따기 체험 등 다양한 전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2025 함평 물놀이 페스타는 여름철 새로운 지역축제로서 사계절 축제를 지향하는 함평의 새로운 도전이자 가능성”이라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활력이 넘치는 함평의 이미지를 만들고,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오

는 7월 18일 금요일부터 8월 17일 일요일까지 운영하며, 월요일은 환경 정비를 위해 휴장한다.

함평/전광춘 기자

완도군청 본관 3층에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개소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 운영, 군민 편의 제공

완도군은 지난 16일 군청 본관 3층에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이 개소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에는 개소식을 가졌으며, 신우철 완도군수와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해남세무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다.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은 납세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민원실 역할을 하게 된다.

국세·지방세 신고, 국세 수시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이뤄지고,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지방세 민원은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민원실에는 해남세무서 세무 공무원 1인 이상이 상시 근무 중이다.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신고 기간에는 세무서 공무원이 추가로 파견되며, 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합동 근무를 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완도 군민이 국세와 지방세를 처리하기 위해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과 군청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납세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우선시하며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납세 편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담양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현장 소통

전라남도 농공단지협의회와 함께 기업 건의사항 청취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26일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 (사)전라남도 농공단지협의회(회장 최성규) 관계자들이 함께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경영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광선 부군수 주재로 영세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대학과 연계한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 전문 안전관리자 위촉을 통한 안전관리 부담 완화 방안 등 다양한 제안이 논의됐다.

정광선 부군수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기업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행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장마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주기업과 단지별 협의회에 관심과 예찰을 당부했다.

(사)전라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최성규

회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권익 보장을 위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담양 농공단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담양/이종옥 기자

강진군, 노인일자리 일자리 안전망 강화

어르신 주도 창작극 ‘사당나무 그늘아래’ 인기

강진군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익활동형 및 역량활용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195명(공익활동형 99명, 역량활용형 96명)이 참여했다.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실질적이고 유익한 교육 콘텐츠로 구성해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어르신들에게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을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밌게 전달함으로써 집중도를 높였다. 혹서기에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채워졌으며,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쉽고, 기억에 남고, 직접 실천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경륜전수팀’이 선보인 창작 연극 〈사당나무 그늘아래〉 공연이었다. 이 연극은 한 시골 마을의 사당나무 그늘 아래서 쉬기 위해 능첨지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에서 출발해, 주인공이 그 그늘을 300냥에 사들이며 벌어지는 갈등과 공동체 회복의 과정을 유쾌하게 그렸다.

연극의 각본과 연기는 모두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되었으며, 요양원과 복지관 등을 순회 공연 중인 인기 창작극이다. 이날 공연 역시 생동감 있는 연기와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교육에 참석한 김정자 어르신은 “안전수칙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연극까지 볼 수 있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전재영 복지환경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의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전한 활동을 위해 오늘 교육 내용을 잘 숙지해주시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2025 순천일기’ 참가자 선정… 청년·수도권 중심 참여 뚜렷

청년세대가 주목한 순천, 감성 체류형 여행지로 자리매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도시의 감성과 일상을 여행처럼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2025 순천일기’ 참가자 모집을 마무리하고, 27일 최종 선정 명단을 발표했다.

‘순천일기’는 일정 기간 순천에 머물며 전통시장, 마을 프로그램, 지역 축제 등 다양한 로컬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SNS 등을 통해 기록·공유하는 참여형 여행 프로그램이다.

이번 모집에는 총 68팀 126명이 지원했으며, 그중 20~30대가 64%, 수도권 거주자가 58%를 차지해, 순천에 대한 청년층과 수도권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내용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20명 내외의 참가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참가자들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7~10일간 순천에 체류하며, 순천마을스테이 숙소에서 머물고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만의 ‘순천일기’를 써 내려가게 된다.

시는 참가자에게 숙박, 식사, 체험 등 실비성 경비를 1인 1일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순천을 일상 속 여행지로 알리는 감성 콘텐츠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통해 순천이 청년층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체류형 여행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순천의 일상과 감성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정성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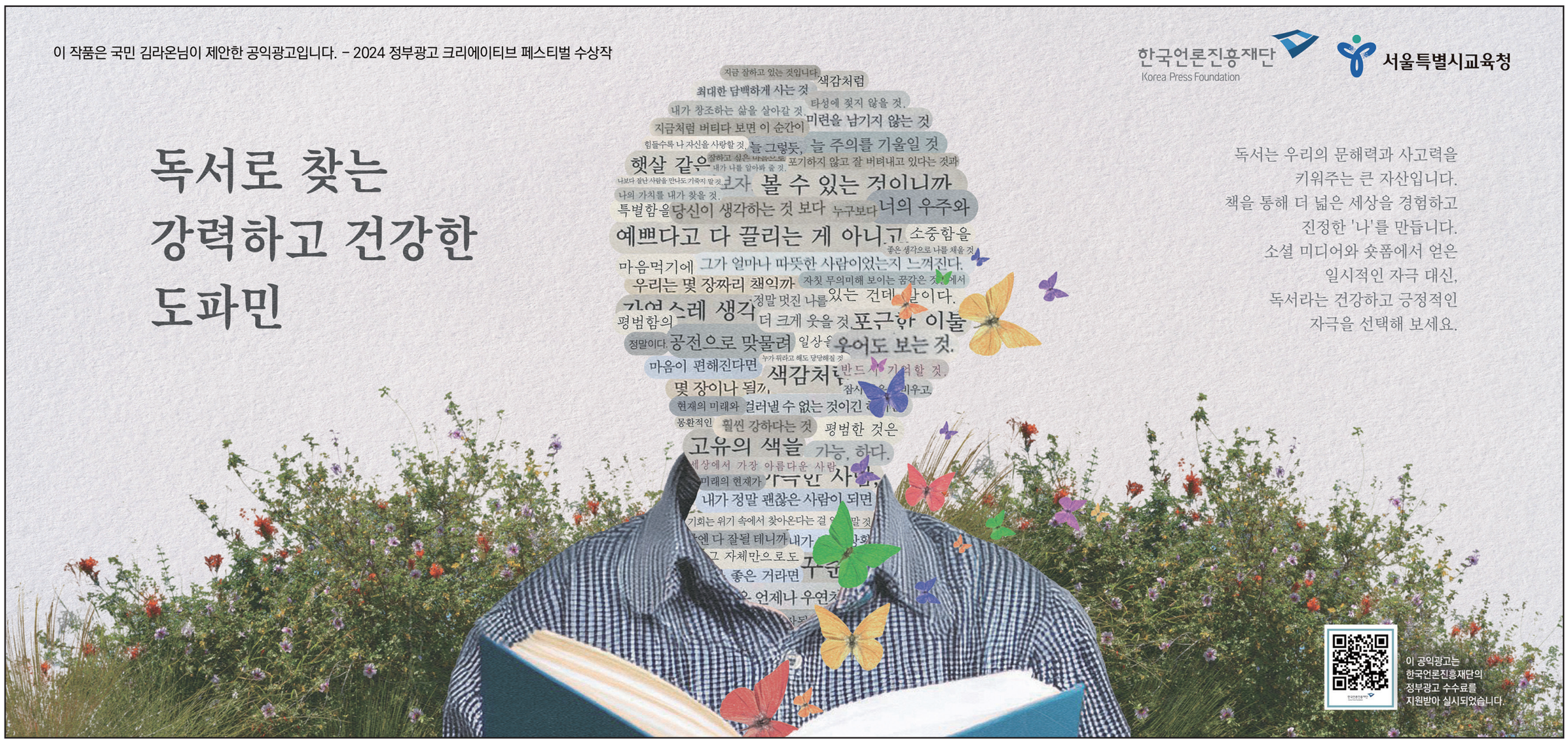
고흥군, 장마철 대비 농업기반시설물 합동 점검 실시

전남도·농어촌공사와 협력, 방조제·배수장 등 취약 시설 집중 점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6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방조제 및 배수장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남도와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재해 취약지역인 방조제와 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방조제 사석 유실 및 침하, 권양기 문비 작동 상태, 배수장 펌프 가동 상태, 전기시설 관리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 외에도 고흥군은 읍·면과 협력해 저수지 230개소, 방조제 56개소, 양·배수장 13개소 등 관내 주요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며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극단적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재난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사전 점검 등 철저히 대비해 안전한 고흥을 만들어 가겠다고”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